백년거리서 장춘 제1회 탕후루축제 개최

— 신춘묘회와 함께 펼쳐지는 '명절 속 축제 · 축제 속 명절'

2월 10일, 장춘 제1회 탕후루축제가 장춘상부지력사문화거리(长春商埠地历史文化街区)에서 개막되였다. 탕후루 겉면의 반짝이는 사탕이 이 백년거리의 력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달콤한 체험과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3월 3일(정월대보름)까지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춘묘회(新春庙会)와 함께 '명절 속 축제 · 축제 속 명절'이라는 몰입형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행사 현장에서 중화로자호(老字号) '로무생'(老茂生)의 설탕 공예장인이 놀라운 솜씨를 선보였다. 호박색(琥珀色) 시럽이 그의 손에서 자유롭게 흘러내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짝이는 설탕 코팅으로 변했다. 이 '탕후루 마술'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감탄해마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온 시민 장녀사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솜씨는 마치 마술 같아요. 우리 세대의 어린시절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니, 정말 의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고 감회에 젖어 말했다. '로무생'의 수공예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탕후루축제를 통해 '로무생'의 전통 설탕 공예 기술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탕후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의 전승이자 추억의 매개체입니다. 앞으로도 '로무생' 탕후루의 독특한 맛과 이 수공예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며 전통의 멋을 현대에 되살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거리 중심의 높이 10메터 되는 탕후루 형태의 얼음조각이 가장 인기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였다. 해빛 아래 얼음조각이 다채로운 빛을 발산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린근에 마련된 창의형 전시구역에는 야채와 과일 등 새로운 재료로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탕후루가 전시되여 많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전통 탕후루가 이렇게 멋스럽게 변할 줄 몰랐어요!" 대학생 왕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옛맛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인 새옷을 입었으니 우리 세대가 전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거리에서는 민속시장, 거리 퍼레이드(街头巡游), 빙설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 사람들은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옛 거리가 풍기는 새로운 활력과 새해 축제의 짙은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백년 력사를 품은 거리에서 이런 달콤한 행사가 열리다니 정말 제격입니다." 시민 류로인은 구경을 마친 뒤 진솔하게 터놓았다. "한쪽은 빙설의 상쾌함이고 다른 한쪽은 활기찬 생활의 정취인 것 같습니다. 이 탕후루 한꼬치는 어린시절의 추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장춘 사람들이 겨울에 느끼는 뜨겁고 달콤한 삶의 의지를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탕후루축제는 '달콤한 부호'인 탕후루를 매개로 력사문화거리의 겨울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의 새해 풍속에 창의적인 표현을 더하며 빙설의 정취와 생활의 열기가 어우러진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시의 온기와 독특한 문화 매력을 깊이 느끼게 했다.

/ 주동기자

위만황궁박물원 '음력설 장터' 개막, 박물관에서 설을 맞다

2월 10일, '박물관에서 설날 맞이'를 주제로 한 '음력설 장터'가 위만황궁박물원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10여일간 지속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전통 설 풍습, 무형문화유산 체험과 력사적 분위기가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공간을 선보인다.

개막 첫날,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작된 '음력설 장터'는 세시풍속 퀴즈, 명절 테마 공연, 수공예 무형문화유산 체험 등 흥미로운 활동들로 채워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유서깊은 건축물에서 따뜻하고 경쾌한 명절 분위기를 만긱할 수 있었다.

행사 시작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설날 분위기를 미리 즐겼다. 올해 박물관에 '음력설 장터'를 마련한다고 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는 장춘 시민 류녀사는 "현장에 설맞이 관련 상식 퀴즈도 마련되여 력사 건축군 속에서 보내는 이 새해가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즐겁게 놀면서도 문화를 배울 수 있어 단순히 길거리를 거니는 것보다 훨씬 보람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동성에서 아이를 데리고 관광 온 원녀사(阮女士)는 장춘 관광에서 위만황궁박물원을 중요한 코스로 선택했다. 아이에게 이 도시의 력사와 문화를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마침 '음력설 장터'가 개막되여 참여했는데 현장이 매우 활기롭고 력사유적 관람과 함께 북방 설날의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여 좋았다."고 전했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박물관이 설날 문화 체험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활기찬 '음력설 장터' 형식을 통해 력사적 장소를 생동감 있게 유지하며 전통 설 풍습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와 현대생활의 련결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장터 개방 기간 동안 박물관은 정상적으로 개방한다.

/ 주동기자

부여 · 고구려 · 발해, 길림성의 력사를 말하다

— 주요 연구 출판 성과 발표회 장춘서

2월 7일, 길림성신문출판국에서 주최하고 길림동북아출판미디어그룹, 길림문사출판사에서 주관한 '길림성 부여, 고구려, 발해국 력사 연구 출판 성과 발표회'가 장춘시 '더 북' 문화공간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행사는 습근평문화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업무보고 청취시 습근평 총서기가 한 연설 정신을 관철하며 동북지역 변경 력사문화 연구, 문화유산 보호 및 지역 문화 전파 분야에서 길림성이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굳건히 하여 진흥의 힘을 보태주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부여, 고구려, 발해국의 력사 유적은 길림성의 천년 문화 흐름을 담은 중요한 매개체로 중화민족 다원일체 문명 구조의 중요한 증거이다. 이번 발표회는 2025년이래 동북 변경 력사문화 연구를 심화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계승한 길림성의 중요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한해 동안 길림성에서는 관련 도서 18부를 출판하고 론문 78편을 발표하였는바 그 성과 수량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발표회에서 길림문사출판사는 정성껏 기획한 《부여간사》, 《고구려간사》, 《발해국간사》 등 세권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도서 시리즈는 전문가들이 학술 연구와 과학 보급을 동시에 실현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간결한 문체로 구성된 이 책들은 실용적인 포켓북 형태로 대중적 표현 방식을 통해 동북 변경 문명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화민족의 다원적 통합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에 기여하는 생생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전문가, 학자, 주요 창작자, 청년 학생, 출판단체 대표들이 창작 연구 해석과 학술 성과 전환, 학과 건설 계승, 편집출판 혁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감을 나누었다. 출판단체와 저자 대표는 길림성박물원, 길림성도서관, 집안시박물관에 새 책을 증정했다.

/ 길림일보

단란한 가족 모습 사진에 담아요!

— 제7회 가족사진 공익촬영 행사 장춘구아신생활서

최근 '길풍 길운 길상 보내주기'(吉风吉韵送吉祥)를 주제로 한 길림성문화관 제7회 가족사진 공익촬영 행사가 장춘구아신생활(长春欧亚新生活)에서 공식 개막되였다. 2026년 길림성 신춘 문화혜민 시리즈 활동의 중요한 행사중 하나인 이번 활동은 길림성문화및관광청에서 지도하고 길림성문화관에서 주최하였다.

행사 현장에는 중식 전통복과 명절용 빨간 스카프 등 특색 있는 복장들이 마련되여있고 전문 사진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써비스를 제공해주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정들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모임의 단란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게 되였다.

길림성문화관 관계자는 "가족사진에는 단순한 단합의 기록을 넘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중국인들의 념원과 '가정과 국가의 원만한 화합'이라는 정서적 전통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7년간 이 행사는 문화혜민의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오며 지금까지 수천 가정에 소중한 단란함의 순간을 기록해주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현역군인 가정과 도시건설자 가정 등에 우선 써비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깥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있지만 촬영 현장은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환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예약후 방문한 가족들은 전문팀의 세심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그리고 친절한 안내 아래 정성껏 꾸며진 배경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했다.

"평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여 특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시민 왕녀사는 부모님과 아이를 카메라 앞에 세우며 감동과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공익촬영에 참가한 모든 가족은 행사후 이메일을 통해 무료 촬영 원본 파일을 받아 단란함과 새봄을 담은 이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된다.

/ 길림일보